

“원더풀, 완도풀”... ‘완도형 치유산업’ 확산 방안 모색

국내의 전문가·항공·여행기업 등 60여명 참석 국제 세미나 성료 수목원에 산림치유·청산도에 테마치유... ‘치유의 섬’ 조성 박차

완도군이 섬 전체를 ‘치유의 섬’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완도군은 최근 ‘완도형 치유산업 확산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열고 해양치유와 함께 산림치유, 테마치유 등으로 섬 전체를 치유의 섬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미나는 완도의 해양치유, 산림치유, 치유농업, 치유관광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완도형 치유산업’ 확산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으며,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공희 완도군의 회 의장, (사)스마트치유산업포럼을 비롯한 치유산업 관련 기관·기업, 국내외 항공, 여행, 캠핑 관련 기업 관계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이곳에 산림치유단지를 조성하고, 서편제 촬영지인 청산도를 비롯한 섬 전체 자연경관을 활용한 테마치유 공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립난대수목원은 1991년 4월 완도군 군외면 일원에 개원한 전남도의 완도수목원을 산림청에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81ha 면적에 147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새롭게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7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완도산림치유단지는 올 3월 숲속야영장 착공을 시작으로 난대수목원보다 앞선 2026년 12월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신 군수는 “청산도는 우리나라에서 과학적으로 제일 기가 센 곳으로 입증됐다”며 “범바위 기(氣) 치유장소를 비롯한 소리, 예술, 경관을 접목해 전 섬을 치유의 섬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외국인이 찾아오면 완도의 전체 자연환경과 함께 치유 효과에 감탄해 원더풀이 나오듯 ‘완도풀’ 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완도풀’은 영어 감탄사 원더풀에 완도를 합성한 신조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완도형 치유산업 확산을 위한 국제세미나’는 ‘건강의 섬 그리고 치유의 섬’을 주제로 완도군이 해양치유와 산림치유를 연계한 치유산업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는 마사키(Masaki) 와세다 대학교 객원연구원인 일본 치유산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한



신우철(가운데) 완도군수와 김재수(오른쪽) 스마트치유산업포럼 이사장 등이 세미나 후 완도형 치유산업 확산을 염원하는 영문 홍보판을 들고 연호하고 있다.

일 양국의 웰니스 관련 산업의 상호 정보교환과 협력을 제안했다. 또 엘링스(Elings) 네덜란드와 계남 대학교 연구원은 유력사례를 토대로 치유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를 위해 몽골에서 직접 참석한 에어로몽골리아(AERO MONGOLIA) 관계자는 전남 무안공항 활용을 통해 전남권 연계 완도형 치

유관광 상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무비자 입국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면 제주와 마찬가지로 완도도 치유관광객 유치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김재수 (사)스마트치유산업포럼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분야별 완도형 치유산업에 대한 확산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김재수 스마트치유산업포럼 이사장은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치유의 섬 완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완도만의 치유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마을 활력 쑥쑥’ 공동체·으뜸마을 사업 속도낸다

모임·단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도 확대

해남군은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과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올해도 적극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 스스로 마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립형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인 이상 주민 모임이나 단체 등에서 지원 가능하고, 단계별·유형별로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는 소규모 공동체에 대한 학습 지원과 지역 사회 자생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규모 공동체 학습지원에는 200만원,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총 66곳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해남군은 매년 50여곳의 신규마을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도내 가장 모범적인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지난해 전남도 최우수상을 받기도



석수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주민 공동체 의식이 높아진 것을 느낀다”며 “주민

과 마을에 활력을 가져오는 공동체 사업 발굴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비용 지원

다음달 8일까지 신청자 모집

영암군이 다음달 8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 정착과 창업,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영농 기반 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 등의 창업자금, 주택구입·신축 및 귀농인 소우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농지 구입, 측사 신축, 한우 입식 등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1958년 이후 출생하고, 영암군 전입 5년 미만의 귀농인 또는 영농경험이 없는 비농업인이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를 계

확하고 있는 예비귀농인도 가능하다.

사업실적과 대출기관 심사로 정해지는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75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1.5%인데, 변동금리도 선택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내는 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에서 한다.

사업 참여 귀농인은 관련서류를 갖춰 영암군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시, 노인 일자리 10% 늘리고 이·미용 이용권 지급 확대

돌봄서비스 전담인력도 늘려

목포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목욕·이·미용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등 노인 정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만2446명으로, 전체 인구의 19.8%를 차지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목포시는 올해 ‘어르신 살기 좋은 천하도시’를 내걸고 노인 정책을 강화한다. 목포지역에서 올해 운영되는 노인 일자리는 4187명으로, 전년(3806명)보다 10% (381명) 늘었다.

지난해부터는 고령자의 취업을 연계하기 위해 ‘취업알선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의 대표 노인복지 사업인 ‘어르신 목욕·이·미용권 지급’은 지난해 4분기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한 해 24대에서 33대로 늘려 지급하고 있다.

이달 현재 70세 이상 기초연금금 지급 대상 2만3000여 명이 목욕·이·미용권 지급 혜택을 보고 있다.



목포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전년보다 381명 늘린 4187명을 운영한다.

<목포시 제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전담인력은 30명 늘려 4000여 명의 어르신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부터는 목포시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퇴행성 무릎관절염과 백내장에 대한 수술의 치료비를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70세 이상이다.

무릎 수술의 경우 양쪽 240만원, 백내장은 양쪽 40만원 한도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를 지원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더욱 힘써 노후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j@kwangju.co.kr

‘해남미소’ 설맛이 기획전...최대 46% 할인

다양한 가격대 명절 꾸러미 준비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오는 2월 8일까지 설맛이 할인 기획전 및 고객감사 이벤트가 열린다.

올해는 치솟는 물가와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참여업체와 군 지원을 더해 최대 46%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또 해남미소 회원이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을 통해 소고기 일부 품목을 30%, 최대 2만원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설 기획전에는 땅콩해남 자연의 신선함을 담은 쌀과 잡곡, 축산물, 수산물, 전통식품, 웰빙 과일 채소, 건강식품, 건강차, 전통주 등 총 140여 개 상품과 해남미소의 시그니처 상품인 명품꾸러미 세트를 준비했다.

명절기간에만 한시 판매되는 명품꾸러미 선물세트는 매년 조기 매진될 정도로 인기있는 품목으로, 해남의 대표 농수특산물을 다양하게 꾸러미로 구성해 시중가보다 2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해남미소 명품 꾸러미 세트.

8종으로 구성된 1호부터 13종 구성의 4호까지, 3만 5000원부터 10만원의 가격으로 구성돼 있다. 30개 이상 주문시 맞춤형 상품 구성도 가능하다.

기획전 기간 동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기간 중 구매 총액이 가장 많은 고객 구매왕 50명을 선정해 20만원부터 3만원까지 해남미소 상품권을 포인트로 지급하며, 행운왕 30명은 해남고 구마 5kg을 증정할 예정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군 양태 남강 버스 환승 터미널 앞에서 교통지원과 육상교통 팀장과 공영버스 운수종사자들이 ‘무사고 100일’ 캠페인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교통사고 50% 줄이기’ 대대적 캠페인

신안군이 공영버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공영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인상을 막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 분기 말 다음 달 셋째 주간을 사고 예방 캠페인 기간으로 정해 터미널과 주요 도로변 등에서 집중적으로 사고 예방 캠페인과 안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2024년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무사고 100일 운동의 목표를 전년도 같

은 시간 대비 안전사고 발생률 50%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정했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117개 노선에 75대의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버스 무사고 캠페인과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하고, 100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특전을 부여하는 등 매년 무사고 운동을 전개하면서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 25일 의정활동비 결정 주민 공청회

영광군이 오는 25일 ‘9대 영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주민공청회는 이날 오후 4시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기존에 110만원으로 지급됐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의정활동비 상향 조정은 20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영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는 영광군민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앞으로 열린 영광군 2차 의정비심의회의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영광=김정원 기자 kcw@kwangju.co.kr